

견의 역사

견의 역사는 기원전 2,46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황제의 왕비 서릉이 열탕 속에 누에고치를 떨어뜨렸는데 젓가락으로 건져 올려보니 젓가락에 감겨 붙은 하얗고 가는 실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견의 탄생이다.

기원전 1,700~1,200년경에는 누에고치로부터 생사를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이러한 실을 천으로 하는 제작법을 완성하였다. 드디어 중국의 중요한 생산물이 된 견은 파미르 고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 페르시아로 더욱이 천산북로(天山北路)부터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터키,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어 갔다. 이러한 교역에 의하여 중국문화와 그리스 로마문화의 교류가 활발화하였다. 그러한 중에 서안(西安)(장안(長安))과 터키의 안타키아를 잇는 7,000km의 도로가 연결되었다. 이것이 유명한 실크로드가 된 것이다.

견직물의 유래는 고대 중국의 신화에 의하면, BC 2640년경 황제비(皇帝妃)인 서릉(西陵)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방법을 알아내어, 이때부터 양잠·제사·견직 기술이 퍼졌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서릉은 중국에서 누에의 여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가장 오래된 유물로 BC 100년경 은(殷)나라 때의 것으로 짐작되는 누에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이미 그때 견의 능직(綾織)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麻)·모(毛)·면(綿) 등 다른 섬유와는 달리 유달리 가늘고 긴 견섬유의 장점으로 일찍이 능(綾)·금(錦)·나(羅) 등 여러 가지 천으로 발전하였는데, 고대 중국의 견직물은 오늘날의 복잡한 문직기술(紋織技術)을 낳게 한 요람이기도 하다. 기원전 중국에서는 오랜 동안 양잠과 제사를 엄격한 국가관리하에 두어 비밀로 하고 견직물을 팔았기 때문에, 서역(西域)에서는 현란한 무늬의 섬세한 중국 견직물의

실이 누에고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중국 견직물은 BC 550년경 처음 인도로 전하여졌고, BC 4세기경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에 이은 한(漢)나라 무제의 서역정벌 때, 인도를 거쳐 이른바 실크로드를 따라 페르시아 연안과 지중해 연안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2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중국 비장의 양잠업이 서역에 전파되었으며, 이후 5~6세기에는 콘스탄티노플 지방이 양잠 및 견직물의 중심지가 되었다. 12세기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14세기에 프랑스의 리옹에서, 17세기에는 영국에서 점차 견직물이 융성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는 1793년에 처음으로 견직물 공장이 생겼다. 1804년 자카드의 문직기(紋織機) 발명 이후, 프랑스와 영국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종래의 수공업적인 견직물 공업이 근대화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일본이 세계 제1위의 견직물 생산국이 되었다. 견직물 공장의 경영규모는 문직기 10대 내외의 중소기업 형태로서, 다른 직물공장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보수적이어서 발전이 더딘 편이나, 독자적인 고급직물 분야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BC 1170년경 주(周)나라 무왕 때, 기자(箕子)가 누에씨를 가지고 음으로써 양잠법이 전래된 이래, 삼한 때에는 양잠·제사·견직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니, 고대 중국의 견직물은 서역보다 한국에 먼저 전해졌다.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낙랑지방의 분묘와 공주(公州)의 백제 무녕왕릉(武寧王陵)에서 발굴된 다수의 견직물 조각이 있다. 그러나 기록과 벽화에 의하면, 이미 부여 때 중국에 가는 사신이 비단옷을 입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시대에는 화려한 견직물이 스진천황[崇神天皇] 시대의 일본으로 가는 교역품으로서 처음 전파되었고, 2~3세기에는 일단의 백제 이민(移民)들이 일본에 건너가 본격적으로 능(綾)·금(錦) 기술을 가르쳐 보급시켰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錦)은 경무직(經畝織)을 말하는데, 천의 표면에 색실의 두둑 효과가 두드러져 미려(美麗)하기 때문에 금값과 맞먹었고, 그래서 표기도 금(錦)이라고 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견직물은 국가의 보호 하에 자급할 만큼 육성되었고, 염색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견직문양을 통한 염직 미술은 사치의 극으로까지 치달았으며, 찬란했던 통일 신라시대 문화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보호제도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는 엄격한 복식제도로 인하여, 농가부업으로서의 견직물 생산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명(明)나라로부터 능(綾)·금(錦)·나(羅)·사(紗)·단(緞) 등을 수입해야 하는 퇴조를 보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대왕이 《농상집요(農桑輯要)》를, 중종이 《잠서언해(蠶書諺解)》를 편찬하는 등, 역대 왕들이 양잠과 견직을 장려했다. 그러나 저급한 명주만이 농가부업으로 조금씩 생산됨으로써 겨우 서민들이 자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화려한 무늬의 고급비단은 청(淸)나라로부터 수입하여 왕실이나 양반들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그 뒤, 1902년 대한부인회 소속 서울 용산 직조소에 견직기 2대, 1916년에 서울 장사동(長沙洞) 김덕창의 염직소에 서구식 견직기 2대 등, 이 무렵으로는 근대적인 영세공장이 몇 군데 생겨나서 비단을 짰으나, 그 질과 무늬가 청국산에 비할 바 못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23년에는 본견직물 대용으로 인조견(人造絹)의 수요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자본의 “조선직물 주식회사”가 안양에 설립되었으나, 그 제품도 역시 청국산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국산 비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만 갔고, 그것을 뒷받침이나 하듯, 이 무렵 향간에서는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란 노래가 한창 유행하였다. 중국인인 왕서방이 기생 명월이한테 반해서, 비단을 팔아 모은 엄청난

돈을 다 털렸다는 가사 내용이 말해 주는 것처럼, 당시 비단 장수라면 으레 청나라 사람이고, 비단은 고작 기방(妓房)의 미색(美色)과 통하는 사치품일 뿐, 일반 서민으로서는 기껏해야 혼숫감으로나 장만할 정도로 값비싼 것이어서, 일반서민의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알 듯하다.

그러나 8·15광복 이후 정부의 장려책으로 생사의 생산이 증가하고, 개량 문직기가 속속 도입·설치되어, 견직물(교직물 포함)은 1947년 5,620km에서 1979년 4만 9,828km로 거의 10배나 증산되었다.

최근에는 누에고치 생산환경의 변화와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견직물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92년에는 810만^m²정도 생산하였으며, 4,687만 3,000^m²를 수입하여 3,116만^m²의 견직물을 수출하였다. 견직물은 오늘날에도 특히 여성들의 기호물로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견직물의 고유명칭은 한국의 전통적인 관용어로 명주와 비단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무늬없이 얇게 짠것이고, 후자는 윤이 나게 짠 화려한 것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한국에서 애용되어 온 여러 가지 견직물의 고유명칭을 들면, 공단·법단·양단·화단·철색법단·수단·모본단(호박단)·누단·자순수단·금단·안색단·미려단(고려단 또는 귀려단), 갑사·문사·문관사·생고사·숙고사·진주사, 화생소·숙소·, 삼팔주·노방주, ·순인·화순인 및 당향라·문향라 등 이름도 다채롭다.

일본에 처음으로 누에가 등장한 것은 3세기말의 미생시대, 중애천황(仲哀天皇) 때이다. 교만왕(巧滿王)이 백제로부터 누에 종자를 가지고 도래하였다는 기록도 있고 고사기(古事記)에도 견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노략계도 신화시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산기술이 정착한 것은 대화조정(大和朝廷)시대로 되고 나서였다. 그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천면이 집단 귀화하였다. 그와 더불어 양잠, 생사의 제사법, 제직

법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견은 누에의 고치로부터 취해지는 섬유이다. 누에고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육되고 있는 누에는 개량을 거듭하여 오랜 세월사이에 조금씩 사육에 길들여져 사람이 사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가잠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가잠은 원래 히말라야 지방의 야잠으로부터 진화한 것으로써 그의 조상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서식하고 있는 새누에나방(누에의 원종)이었다고 한다.

일본의 누에에서는 천잠이 유명하고 전국 각지에 살고 있다.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등의 잎을 먹고 투과해 보이는 듯한 아름다운 녹색을 하고 있다. 누에고치도, 실도, 녹색이다. 천잠에서 얻어지는 견사는 광택이 있고 강하고 피부 촉감이 부드러워 섬유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고 있다. 촌의 개선운동 등의 영향도 있어 천잠을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났으나 예로부터 천잠의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은 장야현(長野縣)의 수고정(穗高町)이다.

작잠은 중국, 인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누에이다. 타샤라고도 부르고 있다. 작잠사는 담갈색으로써 광택은 있으나 염색하기 어려운 것이 약점이다. 다른 섬유와 섞어서 무늬 있는 염색 등에 사용한다. 그 외에 인도의 앳삼지방에서만 사육되고 있는 무카누에 또 피마자를 좋아해 먹는 히마누에 등이 있다. 이들은 누에고치가 면상으로 부드럽고 생사(견직물)로 하는 것이 어려워 그 의 대부분은 방적(견방사) 원료가 된다.

견사의 종류에는 생사, 옥사, 견방사, 견방주사, 쓰무기사가 있다. 생사라 함은 가잠의 상질의 누에고치로부터 자아낸 실(장섬유)이고 견방사라 함은 견방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실(단섬유)이다.

누에고치의 생산량 : 생사로 되는 누에고치의 세계 전 생산량은 약 50만톤, 중국이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하고 인도, 구소련, 그리고 일본(3.5~4만톤)으

로 이어진다.

한 마리의 누에는 일생에 약 20g의 뽕잎을 먹고 체적으로 75배, 체중으로 약 10,000배까지 성장한다. 전신이 황금색으로 투과해 보이는 숙잠이 되면 1분간에 60회 정도 머리를 흔들며 S자를 그리면서 누에고치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크웨이브라 불리고 있다. 누에고치의 무게는 약 2g으로 그 중 80%가 번데기이고 나머지 20%가 누에고치의 층(실이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누에고치 층의 약 85%가 생사가 되고 나머지 15%는 견방사의 원료가 된다. 누에에서 나오는 실(견섬유 2올 함유)은 0.5g이고 실의 길이는 1,200~1,500m로써 굵기는 2.8데니어이다. 견섬유(누에고치 실)의 단면은 반타원형, 또는 삼각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난반사하여 우아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발산한다. 그의 측면을 살펴보면 여기 저기에 마디가 있어 화학섬유와 같이 균일한 성상은 아니다. 누에고치는 망목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교차를 하고 있는 곳은 세리신이라고 하는 딱딱한 단백질에 의하여 고착하고 있다. 세리신을 제거하면 피브로인(섬유소)이 나타나고 비교적 매끄럽게 된다. 이러한 피브로인에 의하여 견직물의 독특한 낭창낭창함, 드레이프성 광택 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견사의 단면 : 피브로인 한올의 굵기는 거의 1데니어, 1데니어는 길이 9,000m 섬유 중량이 1g인 것을 말한다. 천연섬유 중에서 가장 가는 섬유이다. (임전웅부)(林田隆夫)